

2023. 10. 13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12일 오전 11:15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

친환경차량과장

정 순 규

02-2133-3580

그린카보급팀장

윤 원 미

02-2133-3640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관련 누리집

<https://www.seoul.go.kr>

서울시, 가구 배송도 전기화물차로...이케아코리아와 친환경 배송 협약

- 13일(금) 가구 유통기업(홈퍼니싱 리테일) '이케아코리아'와 친환경 배송 맞손
- 이케아코리아, '25년까지 가구 배송 100% 무공해차 전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협력
- 서울지역 배송 협력사 선정 시 무공해 화물차 도입을 필수 요건으로 지정·지원
- 서울시,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및 접근이 쉬운 충전 기반(인프라) 확대 등 협력

서울시가 13일 이케아코리아(대표 겸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 이사벨 푸치)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배송 생태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○ 협약식은 10월 13일 금요일 14:00에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회의실에서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, 이사벨 푸치 이케아코리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.

서울시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차 10% 시대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. 그중에서도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화물차, 택배차 등을 전기차로 집중해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.

- 이케아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은 유통·물류계의 배송용 차량을 무공해 화물차로 신속하게 전환하고, 배송 환경에 적합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배송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성사됐다.
 - ‘이케아(IKEA)’는 2017년 다국적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그룹(The Climate Group)인 ‘글로벌 EV100 이니셔티브’에 가입했으며, 2025년까지 전국 배송서비스에 100% 전기 트럭(친환경 차량)을 도입할 예정이다. 현재('23.9.)는 전체 배송의 약 45%를 전기 화물차로 운행 중이다.
 - 또한 향후 건립될 이케아 강동점에서 출고되는 소형, 경량 화물배송부터 이케아 매장 간 간선 수송까지 다양한 친환경 운송 수단을 테스트해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.

-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서울시와 이케아코리아는 친환경 배송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, 수송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.
 - 이케아코리아는 ▲2025년까지 가구 배송 차량을 무공해 화물차로 100% 전환 ▲서울지역 가구 배송 협력사 선정 시 무공해 화물차 도입을 필수 요건으로 지정 ▲배송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정보 공유 ▲무공해 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진행한다. 서울시는 ▲전기화물차 구매와 ▲전기화물차가 접근하기 쉬운 충전 인프라를 확대·지원한다.

- 이사벨 푸치 이케아코리아 대표 겸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는 “이케아는 앞으로도 사람과 지구에 친화적인 기업으로서 에너지 절감과 자원순환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를 공유하고,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-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“이케아코리아의 성공적인 무공해 화물차 전환으로 유통·물류 업계에 친환경 배송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”라며 “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더 맑은 서울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이케아 전기화물차 사진
2. MOU 체결 사진(추후제공)

1. 이케아 전기화물차 사진



2. MOU 체결 사진(추후제공)

